

<http://dx.doi.org/10.17703/JCCT.2018.4.2.17>

JCCT 2018-5-3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Lif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심정신*

Chung-sin Shim*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K광역시에 소재한 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40명이었으며, 연구기간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학습력($\beta=.143$, $p=.029$)과 수업집중도($\beta=.099$, $p=.048$)이며 설명력(R^2)은 37.0% 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수업집중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 삶의 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and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Method : The participants were 340 nursing students in K city, who were surveyed between October 10 and October 17, 2017,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Resul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ife satisfaction for nursing students. The variables for life satisfaction addiction wher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eta=.143$, $p=.029$) and “Class concentration” ($\beta=.099$, $p=.048$), with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of 37.0%. Based on these results,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strategies related with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lass concentration disposition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ife Satisfaction

*정회원,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접수일: 2018년 2월 12일, 수정완료일: 2018년 3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5일

Received: February 12, 2018 / Revised: March 16, 2018

Accepted: April 5, 2018

*Corresponding Author: mwsim@hanmail.net

Dept. of Nursing, Chosun Nursing College, Korea

I. 서 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행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위한 심리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접근이 시작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으며 [1], 1980년대 들어서 행복에 대한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의되면서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로 심리학적 연구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만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2].

삶의 만족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경험하는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느낌의 복합적인 상태로 자기가 바라던 것과 실제 성취한 것을 비교하여 인생의 만족감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3],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직업활동의 기반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가게 된다[4]

특히, 간호학과는 다른 과에 비해 취업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과정을 힘들게 느끼고 있었으며, 학교 수업이 취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5]. 적지 않은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전문직으로 간호사 직업에 대한 자신의 적성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취업을 하게 된다. 임상현장에서 많은 신입간호사들은 막연히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을 하지 못해 일반 간호사 이직률이 2014년 93.5%에서 2015년 94.7%로 증가하였다[6].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직업활동의 시작인 임상현장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교수업을 자신이 어떠한 행동으로 성공적으로 수행 해낼 수 있다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7].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학문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학습자로 하여금 전문직 직업의 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도전적인 학습상황에서 끝까지 과제를 완성하도록 유도하는 주요한 동기이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학업 상황과 관련된 다른 동기적 인지적 변수

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등 학습자의 수행 및 성취 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8], 과중한 학업 요구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학업소진이 초래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실제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중한 학업요구와 학업 소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9],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조절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사의 특징인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며, 간호대학생들은 성공적인 직업활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학업적 능력과 학습동기, 학습성과를 높여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 주된 능력이 자기주도적 학습력이다[11].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 설정한 후 학습에 필요한 자원확보 및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하는 것으로[12], 학습자가 동기를 유발하고 자기능력 수준에 맞도록 학습진도를 조절하는 학업 성취에 매우 중요하다[13].

학업적 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 생활 적응[10], 임상수행능력[11], 셀프리더십[14], 비판적 사고성향[15] 등의 관계 연구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내적 동기부여 측면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적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적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삶의 만족도 정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간호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

도적 학습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G광역시 일 대학의 3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출하여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5$,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1- β) 0.95을 설정하였을 때 최소 184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수는 최소 표본 수를 충분히 충족하였다. 본 연구는 서면에 동의한 346부 중 부적절한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340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Kim과 Park[16]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Park[1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sim.87$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0$ 이다.

2) 자기주도적 학습력

본 연구에서는 Guglielmino[12]가 개발하고, Kwon[17]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 하위요인으로 학습에 대한 애착 8문항,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8문항, 도전에 대한 개방성 8문항, 학습에 대한 호기심 4문항, 자기이해 2문항,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2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1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30$ 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1$ 이었다.

3)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척도는 Yang[18]에 의하여 개발된 척도를 Kim[19]이 수정, 보완한 총 43문항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가정생활 11문항, 학교생활 7문항, 대인관계 만족 8문항, 주관적 삶의 만족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측정방법은 Likert 5점 척도로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19]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1$ 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 PC+ 20.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 및 삶의 만족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 분석은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 및 삶의 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시 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대상자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외로만 사용할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 후 수행하였으며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340명중 여학생이 307명(84.1%)이었고, 3학년 118명(32.3%), 4학년 222명(60.8%)이었으며, 동아리가 없는 경우는 287명(76.6%)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는 182명(49.9%), 교육집중도는 높다가 199명(54.5%)이었다. 경제상태는 중류층이 234명(64.1%)이었으며,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55명(15.1%)이었다. 가족분위기는 개방적이다가 267명(73.2%)이었고, 학비조달은 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으

로 해결하는 경우가 140명(38.4%)이었다. 진학동기는 스스로 결정한 경우가 151명(41.1%), 부모 권유에 의해 진학한 경우도 127명(34.8%)이었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Male	33(9.0)
	Female	307(84.1)
Grade	3rdyr	118(32.3)
	4thyr	222(60.8)
Circles	Yes	53(14.5)
	No	287(76.6)
Religion	Yes	158(43.3)
	No	182(49.9)
Class concentration	High	199(54.5)
	Moderate	103(28.2)
	No	38(10.4)
Internet usage time(hr)	≤ 2	214(58.6)
	3~4	93(25.5)
	≥5	33(9.0)
Economic status	Upper	55(15.1)
	Moderate	234(64.1)
	Low	51(14.0)
Family atmosphere	Open	267(73.2)
	Moderate	69(18.4)
	Closed	6(1.6)
School expenses	Parents	118(32.3)
	Scholarship	140(38.4)
	loan	36(9.6)
	Oneself	47(12.9)
Advance motivation	Oneself	151(41.4)
	Achievement	38(10.4)
	Parent recommendation	127(34.8)
	Teacher recommendation	24(9.2)

2.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삶의 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18±0.28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영역별로는 ‘자기 조절효능감’이 3.34±0.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 3.11±0.46점, ‘과제난이도 선호’ 3.06±0.35점 순이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9±0.48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영역별로는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3.56±0.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에 대한 애착’ 3.53±0.59점, ‘자기이해’ 3.52±0.64점, ‘도전에 대한 개방

심’ 3.51±0.49점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3.44±0.53점 순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3±0.35점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별로는 ‘대인관계’ 3.43±0.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생활’ 3.19±0.45점, ‘주관적 삶의 만족’ 2.77±0.42점, ‘가정생활’ 2.36±0.60점 순으로 가정생활이 가장 낮았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 삶의 만족도 정도

Table 2. Mean Scores of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Variable	Category	M±SD
Academic Self-efficacy	Task difficulty preference	3.06±0.35
	Self-regulatory efficacy	3.34±0.42
	Self-confidence	3.11±0.46
	Total	3.18±0.28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ttachment about learning	3.53±0.59
	Self-assurance as a learner	3.44±0.53
	Openness about Challenges	3.51±0.49
	Curiosity about learning	3.38±0.73
	Self-knowledge	3.52±0.64
	Accept the responsibility for learning	3.56±0.69
	Total	3.49±0.48
Life Satisfaction	Home life	2.36±0.60
	School life	3.19±0.45
	Human relationship	3.43±0.47
	Subjective satisfaction of life	2.77±0.42
	Total	2.93±0.3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삶의 만족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종교(t=2.132, p=.03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적 학습력에서도 종교(t=2.177, p=.030)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수업 집중도(F=4.417, p=.017), 인터넷 사용시간(F=3.633, p=.02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수업집중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 및 삶의 만족도

Table 3.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ategories	n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ife Satisfaction	
			Mean SD	t or F	Mean SD	t or F	Mean SD	t or F
Gender	Male	33	3.18±0.31	0.052(.958)	3.45±0.59	-0.439(.668)	2.88±0.38	-0.861(.390)
	Female	307	3.18±0.28		3.49±0.46		2.93±0.34	
Grade	3rd yr	118	3.02±0.22	-1.418(.160)	3.66±0.69	0.309(.758)	2.77±0.30	-0.993(.323)
	4th yr	222	3.20±0.29		3.59±0.51		2.92±0.36	
Circles	Yes	53	3.18±0.27	0.168(.867)	3.48±0.40	-0.69(.945)	2.89±0.39	-0.817(.415)
	No	287	3.18±0.29		3.49±0.40		2.94±0.34	
religion	Yes	158	3.21±0.29	2.132(.034)	3.55±0.46	2.177(.030)	2.93±0.38	0.260(.795)
	No	182	3.15±0.27		3.44±0.49		2.92±0.32	
Class concentration	High	199	3.17±0.48	0.050(.954)	3.48±0.45	0.068(.935)	2.97±0.32	4.147(.017)
	Moderate	103	3.18±0.26		3.49±0.51		2.89±0.37	a>b,c
	No	38	3.18±0.30		3.51±0.55		2.82±0.37	-
Internet usage time	≤ 2	214	3.19±0.28	.211(.810)	3.49±0.48	0.147(.863)	2.97±0.33	3.633(.027)
	3~4	93	3.17±0.29		3.47±0.46		2.85±0.36	a>c>b
	≥5	33	3.16±0.30		3.52±0.52		2.90±0.34	
Economic status	Upper	55	3.18±0.29	0.415(.661)	3.41±0.41	1.694(.185)	2.94±0.35	.137(.872)
	Moderate	234	3.17±0.28		3.49±0.49		2.92±0.35	
	Low	51	3.21±0.29		3.59±0.47		2.95±0.34	
Family atmosphere	Open	267	3.19±0.27	0.800(.450)	3.48±0.49	0.699(.498)	2.95±0.33	1.742(.177)
	Moderate	69	3.14±0.32		3.53±0.44		2.86±0.37	
	Closed	6	3.22±0.47		3.32±0.38		2.92±0.54	
school expenses	parents	118	3.15±0.28	0.995(.395)	3.46±0.46	0.776(.508)	2.98±0.36	1.616(.185)
	Scholarship	140	3.21±0.30		3.48±0.48		2.89±0.37	
	loan	36	3.18±0.30		3.48±0.44		2.91±0.28	
	Oneself	47	3.17±0.23		3.58±0.51		2.93±0.77	
Advance motivation	Oneself	151	3.16±0.31	1.076(.359)	3.49±0.56	0.126(.945)	2.91±0.36	0.423(.737)
	Achievement	38	3.12±0.22		3.45±0.57		2.92±0.28	
	Parent recommendation	127	3.21±0.28		3.49±0.42		2.93±0.36	
	Teacher recommendation	24	3.19±0.26		3.52±0.37		3.00±0.28	

4.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력,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는 유의한 순상관관계($r=.564, p<.001$)가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 학업적 효능감($r=.154, p<.005$), 자기주도적 학습력($r=.184,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표 4.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Variable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ife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564 (<.001)**	1	
Life Satisfaction	.154 (<.005)**	.184 (<.001)**	1

** $P < 0.01$

5.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수업집중도와 인터넷 사용시간을 포함하여 범주형 변수는 Dummy 변수로 전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정성 유무를 분석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IP)는 1.02~1.47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값은 1.960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370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학습력($\beta=.143, p=.028$)과 수업집중도($\beta=.099, p=.048$)의 순이었다[Table 5].

표 5.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Influencing Factor of Life Satisfaction

Variable	B	S.E.	β	t(p)	Adj R ²	F(p)
Class concentration	.112	.060	.099	1.847 (.048)	.370	4.228 (<.001)
Internet usage time	-.021	.064	-.018	-.328 (.743)		
Academic Self-efficacy	.090	.079	.074	1.141 (.254)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04	.047	.143	2.212 (.028)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들의 학업적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삶의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간호사로서의 임상현장에서도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18점이었으며, 하부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

감은 3.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제난이도 수준은 3.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0][21]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22]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과제난이도 수준은 학습에 대해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과제난이도 수준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간호학과 특성으로 취업을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과 고려하지 않은 학과 선택과 간호교육 과정을 어렵게 느끼고 있어[5],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과 실무의 복잡하고 어려운 도전적인 상황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조절이 가능하고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황만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은 졸업과 함께 간호사로서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업인으로 사회의 일원이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식과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기보다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 및 과제난이도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개발과 운영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효능감은 종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특성, 학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자기주도적 학습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9점이었으며, 하위요인에서는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이 3.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에 대한 호기심이 3.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23]의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습에 대한 호기심이 3.46점이었으며,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이 3.13점으로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평균 점수는 3.44점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하위영역에서는 학습에 대한 애착이 3.94점으로 높았고, 학습에 대한 호기심은 2.21점으로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2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는 찾아볼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었으나 다른 도구를 활용한 연구[20]에서는 3.56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력이란 교수자나 조력자에 의해 학습을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선택하여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력의 하위요인 중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

는 것은 간호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게 되므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학습에 대한 호기심이 낮은 것은 교육과정에서 간호학의 특성을 이미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자기주도적 학습력은 미래의 간호사들에게 급변하는 임상현장에서 이론적 지식과 임상실무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스스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3점이었으며, 하부요인 중 대인관계가 3.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생활이 2.36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5]에서는 평균 3.13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으며, 대인관계가 가장 높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가장 낮은 항목은 학교생활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와는 비교할 수 없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4.00점이었[26]. 본 연구에서 가정생활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위한 간호학과 진학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간호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일반 대학생들보다 낮다는 것은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타대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학점관리를 해야하는 학업문제와 경제적 이유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정보와 함께 학교생활과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수업집중도와 인터넷 사용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수업집중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력,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3]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7]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은 간호대학생들이 행복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습력을 갖추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수업집중도로 설명력은 37.0%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을 찾을 수 없었지만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수업집중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간호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갖추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집중도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준비시킨다면 향후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역량 증진과 자신감으로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들이 전문직간호사로 자신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수업집중도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 일 대학의 3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346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은 순상관관계($r=.564, p<.001$)를 나타내었다. 삶의 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154, p<.001$), 자기주도적 학습력은 순상관관계($r=-.148, p<.045$)를 보였다. 간호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수업집중도 순으로 설명력(R^2)은 37.0% 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수업집중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N. Y. Lim, H. R. Lee, E.K.Suh,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 finding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29, No. 1, pp. 21-47, 2010.
- [2] H. Y. Shim, W. L. Kim, J. S. Kim, The Effects of Meaning in Life and Work Volition on Satisfaction with Lif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 pp. 355-372, 2018.
- [3] M. J. Kim, K. B. Kim, Influenc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Middle Aged Adults and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9, No. 2, pp. 150-158, 2013.
- [4] H. I. Park, K. W. Kim, A Stud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Guidance of Collage Student,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23, No. 1, pp. 99-126, 2002.
- [5] J. A. Kim, Nursing Students' Thinking about Employment,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3, No. 4, pp. 83-92, 2017.
- [6] Hospital Nurses Association business report: A Survey Study on the Arrangement situation of Hospital Nurses. Seoul. 2015.
- [7] S. R. Hong, Perceptions of the Self-Efficacy of Youth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9, No. 6, pp. 71-87, 2011.
- [8] A. Y. Kim, I. Y. Park, Construction and valib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9. No.1 pp. 95-123, 2001.
- [9] H. J. Jo, J. Y Lee, J. Y. Jang,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cessive Academic Demands and Academic burnout on High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3, pp. 1605-1621, 2013.
- [10] J. H. kwon, K. H. Kim, The Academic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 Focusing the Mediated effect of Self reregulated Learning, *Youth Culture Forum*, Vol. 35, pp. 32-59, 2013.
- [11] C. H. Jung, The Effects of a Self-directed Learning-enhancement Program on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Self-Efficacy, Empowerment,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10, pp. 319-329, 2017.
- [12] L. M. Guglielmino,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Georgia, 1977.
- [13] M. J. Sim, H. S. Oh,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6, pp. 329-337, 2012.1
- [14] S. Y. Lee, Y. Y. Kim,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309-318, 2016.
- [15] Y. H. Kim, Y. A. Kim,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9, pp. 589-598, 2016.
- [16] A. Y. Kim, I. 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9, No. 1, pp. 95-123, 2001.
- [17] H. J. Kwo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 among learner's learning style,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virtual cla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01
- [18] O. K. Yang,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n mental disorder pers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20, pp. 131-153, 1992.
- [19] E. H. Kim, The Effect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06.
- [20] H. S. Oh, Influence of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9, pp. 311-321, 2017.
- [21] Y. H. Kim, Y. A. Kim,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 No. 9, pp. 589-598, 2016.
- [22] Y. O. Nam, M. H. Choi,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s, Academic Self 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5, No. 4, pp. 623-629, 2015.
- [23] M. S. Suk, A Study on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in Social Welfare Education: Focusing on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35, pp. 1-29, 2016.
- [24] Y. J. Lee,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Level on Campus-life Satisf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2.
- [25] E. H. Kim, The Effect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06.
- [26] W. Kim, Effects of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5, pp. 461-482, 2015.
- [27] H. Hong, Life Satisfaction of First Year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Relation to Self-Esteem and Self-Efficacy,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 5 No. 3, pp. 17-27, 2015.

※ 이 논문은 2017년 조선간호대학교 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